

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이 름 | 최성희 | 소 속 | 신소재공학부 |
| 학 년 | | 학 번 | |
| 연수 국가 | 필리핀 | 해외 연수 기관 | STI WNU |
| 연수 기간 | 2019.01.01. ~ 2019.02.08 | | |

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신청하기에 전에,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7개월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호주를 가기 전까지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고 '영어를 배우는 것' 자체가 지겹고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 이었습니다. 그런데 긴시간동안 영어를 공부했음에도 호주에서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었을 때, 저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영어공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
먼저,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서 배운 점은 다양한 주제에서 제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전까지는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를 얻더라도 '어디서 왔니?', '취미가 뭐니?', '무엇을 좋아하니?' 등 단순하고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고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정치, 문화, 역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토론하고 보다 더 깊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.

다음으로 배운 점은 넓은 시야와 이해심입니다. 어학연수를 하면서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만 했다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별 차이점이 없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면서 필리핀의 정치, 문화, 역사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다양한 관습, 태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이해와 포용은 필리핀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필요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약 6주동안 현지에 살아보면서 접해보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만약 제 주변의 지인이 어학연수를 고민한다면 저는 가보는 것이 좋다고 추천할 것입니다.

